

바 지 考 (I)

—바지 形態에 대한 小考—

A Series of Studies on Trouser Forms (I)

慶熙大學校 衣裳學科

副教授 金 仁 淑

Dept of Clothing & Textiles, Kyung Hee Univ.

Associate Professor; In Sook Kim

<目 次>

I. 序 言

II. 우리 바지 形態에 관한 諸 견해

IV. Hansen의 民俗服 바지 形態 구분

IV. 綜合 및 問題의 提起

參考文獻

<Abstract>

Pants are one of the most complicated clothing items in the sense that they cover the most active part of human body. The technical and conceptual treatment of the required ease in the crotch area shows interesting variations throughout the global folk costumes.

This study here, as an attempt to find out any standard or a good frame of reference to be used to describe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our pants, and/or to compare our pants with nearby folk costumes, presented some of the Korean scholars' views toward our pants forms, and also introduced Hansen's classification of pants types.

Several questions, concerned with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a few types of Korean pants, its classification amongst pants of the world, and it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contrast with those of nearby Asian countries are proposed as new problems to be challenged.

I. 序 言

바지는 人體部位 中 가장 운동자세가 다양하고 운동량이 많은 下肢를 덮는 衣類라는 점에서 소매와 더불어 그 構成上의 기술이 注目되는 衣類의 하나다. 또한 바지는 全世界의 대부분의 民俗衣裳에 적어도 內衣의 모습으로라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形態는 下肢를 감싼다는 점에서는 공통되나, 두개의 가령이를 연결시키는 方法이나, 바지통이나 살부분의 여유분의 해석 및 그 길이나 재단방식 및 표면장식 등에 있어서는 흥미진진한 다양성을 보여준다.

筆者는 우리 民俗服 바지의 源流를 어디서 찾을 수 있으며, 오늘과 같은 形態로의 定着은 언제까지로 소급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

고, 이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바지의 外觀에 관한 고찰과 아울러 構成·製圖의 측면에 기준을 둔 관찰도 並行되어야 한다고 前提하였다.

따라서 本 논문은 우리 민속바지와 여타 민속바지와와의 차이를 규명하고 그 원류를 찾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1. 우리 바지 형태를 보는 先行研究者의 觀點은 一致하는가,
 2. 民俗服 바지구성형태의 기준으로는 어떤 것을 사용할 수 있겠는가,
 3. 1과 2의 考察결과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것들인가,
- 하는 점을 살펴봄으로서 後續研究에서 다루고자하는 諸 課題의 出發點으로 삼고자 한다.

Ⅱ. 우리 바지 형태에 대한 諸 견해

우리나라 고유의 바지 형태에 대한 기록 中, 色이나 재료 등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그 형태나 용도상의 구분을 위한 용어들만 가려보면 다음과 같다. 즉, 上代문헌에서는

袴(三國遺史·三國史記·舊唐書·唐書), 窮袴(南齊書·通典), 大口袴(北史), 大口袴(隋書), 袴大口(舊唐書), 禪(梁書·南史), 柯半(梁書·南史) 등이 있고, 高麗朝의 바지에 대해서는,

袴(高麗圖經), 窮袴(高麗圖經), 夾袴(高麗史) 등으로 그 기록이 드문 편이나, 朝鮮朝 用語로는, 唐袴(松泉筆談), 古長袴(松泉筆談), 廣袴(松泉筆談·林下筆記), 逆祥袴(林下筆記), 襖裙(世宗實錄·嘉禮都監儀軌·樂學軌範·何方定例)·裏衣(成宗實錄·嘉禮都監儀軌·國婚定例)·把持(國婚定例·尙方定例) 등의 漢字用語 외에도 國末의 衣服撥記에 나타나는 바지·봉디·고의·니의 등의 한글用語等도 있어 그 다양한 표현을 찾아볼 수 있다.

위에서 본 用語 中·우리 上代 袴의 기본형으로 삼는 袴·大口袴·窮袴·禪의 형태구분과 그 用語의 變轉에 대해서는 다소의 見解差가 있는바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李如星¹⁾은 窮袴를 細袴, 大口袴를 寬袴로 보았다. 金東旭²⁾은 窮袴를 現在の 총대바지·잠방이型的 통이 좁은 下庶人의 下服으로 보았다. 柳喜卿³⁾은 窮袴는 총대바지·잠방이류의 폭이 좁은 양복바지류로서 下庶人의 下衣이며, 大口袴는 現在の 우리 한복바지類로서 貴人계급의 下衣이며, 禪은 가랭이가 짧은 잠방이類로 구분한다.

白英子⁴⁾도 窮袴를 통이 좁은 바지類로 禪은 바지길이 짧은 잠방이類의 노동복으로 보았다.

한편 中國 古文獻을 보면, 「說文」에서는 '袴는 脛衣, 즉 무릎이하를 덮는 것'이라고 했고, 「釋名」에서는 '袴는 跨로서 兩股에 각각 跨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王宇清⁵⁾은 古文으로부터 推論하여 '古代形式의 袴는 套袴와 같지 않으니, 套袴의 形制는 左右에 각 가랭이가 있어 밑단은 水平이나 윗단은 斜銳하며 銳角을 앞(몸)에 두고 그 윗 끝에 雙帶를 두어 바지끈에 묶는다. 袴라고 하는 것은 左右를 봉합하여 앞뒤가 열리게 된 것으로, 이것이 소위 開襠袴이다. 본래 바지는 앞뒤가 열린 형상이나, 이것이 막힌 경우 窮袴라 한다. 漢人의 습속으로는 보통 開襠袴를 착용하며, 窮袴를 착용함은 例外이다. 袴의 別製로는 이 외에도 「倒頓」, 「袴釘」, 「禪」 등이 있는데, 禪은 一名 松이라고도 하며, 이것 역시 短袴로서 대체로 袴釘과 같은 것으로서 그 이름이 다를 뿐이다. 禪의 形制는 짧고 좁으며 襠이 붙어있고 卑賤雜役人의 常服이다. 或說에 依하면 圍裙과 같은 모양이라고도 한다'고 했다. 즉, 王宇清은 中國 古制의 바지類에는 袴·袴·套袴·窮袴·禪 등이 있는데, 이 中 袴는 바지라기보다는 무릎아래를 덮는 脚絆類이요, 이것이 연장되어 허벅지의 일부를 덮기는 하나 몸판의 가운데 부분은 없이 左右·각각 따로 떨어진 두개의 가랭이 형태, 즉 套袴制가 있었고, 이것이 한개의 바지끈에 연결되어 몸판의 앞 부분도 가리게는 되었으나 아직 밑이 열린 것이 漢族의 일반적 袴類였고, 여기에 襠이 붙고 밑이 막히게 된 것이 窮袴이며, 역시 이 窮袴의 形制이기는 하나 그 길이가 짧고 바지통이 좁아 下庶人의 노동복化한 것이 禪이라고 보고 있다.

李京子⁶⁾는 王宇清의 論據를 따라 窮袴는 開襠袴가 아닌 바지, 즉 襠이 있는 바지라고 본다. 즉

南齊書에 나타나는 窮袴는 高句麗의 바지가 中國俗의 開襠袴가 아닌 밀이 막힌 바지라는 점을 적고 있을 뿐, 바지폭의 廣狹을 구별해 말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와 같이 窮袴를 襠이 달린 바지라고 보는 견해는 朴京子⁷⁾, 劉頌王⁸⁾, 金文子⁹⁾도 같이 한다.

大口袴를 바지통의 폭이 넓은 寬袴로 보는 견해는 앞에서 든 李如星, 柳喜鄕을 비롯하여 朴京子·劉頌王 등의 견해로서 상당히 일반화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李京子⁶⁾는 隋唐 禮義者에 ‘紫衫大口袴褶·大口袴褶銀裝兩襠甲’이라 한 표현이라든지, 王國維의 「胡服考」에서의 論據를 인용하여 大口袴 또는 袴大口는 袴褶의 下衣를 칭하는 것으로서 胡服下衣를 지칭하는 것이지, 바로 바지통이 넓은 것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袴褶의 바지는 원래 寬袴狀이므로 大口袴는 마땅히 폭넓은 바지일 것이라고 본다. 그는 또한 벽화에 나타난 上代 바지를 고찰해 볼 때 바지는 시기가 후기로 멀어질수록 바지통이 넓어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변화는 먼저 上流支配層에 나타난다고 함으로서 바지형태 변화가 細袴에서 寬袴로 진행해나갔다는 입장을 취한다.

金文子⁹⁾는 大口袴를 일반적으로 드는 寬袴의 예라고 하고, 동시에 王國維가 大口袴를 袴褶의 下衣, 즉 胡服이라 했음을 상기시키면서, 그러나 그 형태는 원래의 고유한 胡服형태가 아니라 中國化하여 아랫단이 밀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사다리꼴 모양을 이룬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上代의 寬袴 즉, 大口袴 中 바지통이 아주 넓고 그 外觀이 사다리꼴 모양으로 보이는 것은 中國화된 胡服下衣의 모습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金文子는 또한 페르시아의 一字形 바지의 영향을 받은 스키타이人의 寬袴가 그들 本來의 皮革制細袴와 함께 中國이나 우리나라에 들어와 우리 固有의 袴形態를 이루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다. 즉 金文子는 大口袴를 袴褶의 下衣 내지는 胡服下衣로 보는 점에 있어서는 李京子와 그 견해를 같이 하나 우리나라의 大口袴 혹은 寬袴에 있어서는 그 外觀상의 형태가 中國의 영향을 받은 사다리꼴 및 순수 胡服系의 一字形의 두 유형이 있다고 보는 點 및 寬袴의 구성方法을 옷감을 직선 그대로 사용해서 따로

따로 가랭이들을 만들어 봉합시킨 형태¹⁰⁾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는 獨自的 견해를 보여준다.

한편 杉本正年, 은 中國과 한국의 袴를 논함에 있어 그 기준을 약간 달리하고 있다. 즉 그는 漢의 袴는 裳 속에 반쳐입는 內衣 종류로서 襠이 없는 것으로 日本의 股引(ももひき)종류로서 胡服이나 승마와 상관없이 防寒의 목적으로 일찌기 中國에서 독자적으로 存在해온 것이며, 窮袴는 바지밀에 襠을 붙인 것으로서 奈良朝 유물의 大口袴나 下袴형태와 비슷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는 한국의 바지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그 기준을 달리하여 窮袴를 바지통이 좁은 것으로, 大口袴를 바지통이 넓은 것으로 본다.

褌은 쇠코잠방이型的 짧은 바지로서 下庶人의 노동복으로 보는 것이 거의 일치되는 견해이다. 즉 삼실총 장사도 및 통구 사신총 역사도 등에 보이는 짧은 바지는 褌으로, 각저총 씨름도·무용총 태권도 등에 보이는 팬티형 바지는 短褌 혹은 犢鼻褌으로 본다. 단지 그 形製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王宇清이 말한바와 같이 襠이 봉합된 형태로는 明示하지는 않고 있다.

短褌, 즉 犢鼻褌에 대해서는 劉頌玉이 훈도시 형태로서 우리나라의 다리속곳같은 것으로 보았고, 朴京子는 속고의 類로 보았다. 杉本도 이것을 훈도시 類라고 하기는 하나 南方形 훈도시와 달리 brief 類라고 본다. 아마도 日本의 훈도시나 우리의 다리속곳과 달리 사타구니 뿐만 아니라 허리의 側面도 一部 가리는 형태로 보는 듯 하다. 한편 王宇清은 前漢書可馬相如傳注에 犢鼻褌은 「그 모습이 쇠코를 닮아 거기서 이름이 나왔다. 무릎 아래 구멍이 있다」고 한 귀절을 인용한 후, 犢의 形制는 左右에 兩籠(袴襠)이 있고 밀이 막힌 형태로서, 犢鼻라 함은 쇠코에 두구멍이 있듯이 兩籠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犢鼻褌을 석자의 배를 몸의 前後에 각 한쪽씩 두고 그 중간을 재단하여 尖襠을 넣어 펼친 것이라는 견해도 소개하고 있다. 결국 王宇清의 견해도 犢鼻褌을 순전히 몸의 앞뒤 中心 부분만 가리는 日本의 훈도시나 다리속곳類보다는 brief 式的 짧은 바지類로 보는 杉本の 견해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다.

한편 褌에 대해서는 또, 梁書에서 百濟의 복식

을 기술할 때 '袴曰禪'이라한 대목을 들어 百濟에서는 바지를 禪이라고 불렀다. 즉 袴·禪의 구별이 따로 없었다. 이와 같은 습속이 日本에 전해져서 日本에서는 하니와의 복식을 衣禪이라고 하는 등 袴·禪의 구별이 명확치 못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우리 바지의 형태 및 그에 관련된 論題로는 위에서 본 袴·窮袴·大口袴·禪의 基本形제에 관한 것 외에 用語變轉에 대한 것·바지밀트임에 대한 것·바지의 형태발전에 대한 것 등이 있다.

즉, 金東旭은 바지를 지칭하는 우리 用語에 「바지」와 「고이」의 두 종류가 있다고 하고 이 中 바지는 日本의 농부복이나 속옷을 パンツ라 함으로 보아 古代에는 語源을 같이하여 출발했을 것으로 보았으며, 지금의 「바지」라는 명칭은 朝鮮朝 鄭麟趾가 「把持」라고 표현한데서 비롯하나, 그 형태는 大口袴·窮袴 中 어떤 것과 유사 혹은 동일한 것인지 아직 알 수 없다하였다. 한편 「고이」는 신라의 柯半이란 용어가 柯半→柯背: 마빤→과→고이로된 것 같고, 女子의 「고쟁이」가 이 계통이라고 보았다. 즉 그는 '가름 보(脛布)', 즉 '두 가랑이로 나뉜 布'를 標音으로 적은 것이 柯半·柯背等일 수 있지 않나하고 추측했다. 그러나 李京子는 柯半이 「고이」로 변했다는 견해는 現 男子用 고이가 일반적인 바지라기보다는 夏節用的 좁고 짧은 바지를 가리키므로, 이것이 곧 신라에서 일반적인 바지를 지칭했던 것으로 보이는 柯背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바지의 밀트임에 관해서는 金東旭¹¹⁾은 '上古時代부터 男女바지의 밀이 트여있었다'고 하여 우리 男女바지의 原初의인 형태가 밀이 열려있는 바지였다고 보나, 白英子는 女子도 上古時代로부터 바지를 곁에 입어 온 점으로 보아 女子바지의 밀이 트이게 된 것은 燕山君 이후부터라고 보고 있다.

朴京子도 조선조 후기에 이르러 女子바지가 寬袴의 밀이 따로 떨어져서 만들어 上下가 모두 입었다고 본다.

高福男은 遺物바지를 男子바지는 넓은 바지·좁은 바지, 女子바지는 男子바지형·밀이 절개된 바지·밀이 막힌 바지로 나누고 男子바지의 형태발전은 아마도 兩脚이 분리된 상태→앞뒤 절개형→

斜幅구성형으로 발전되어 왔을 것이라고 본다. 사복은 처음에는 밀바대 형식인 삼각형의 무(襠)로서 직선재단의 단점을 보충하다가 점진적으로 독립적 양식으로 발전되었을 것으로 보며, 밀바대 형식과 사복형식은 조선조 중기까지도 共存하다가 조선말기부터는 완전히 큰 사복·작은 사복으로 구분되어 독자적 양식을 이루었다고 본다.

Ⅲ. Hansen의 民俗의 바지형태 구분

Copenhagen의 國立博物館에 소장된 몽고복식을 비교 분석하던 H.H. Hansen은 世界的 民俗衣裳에 나타난 바지형태를 다음과 같이 세종류로 구분한다. 즉 脚絆型(genuine legging trousers), 커저기型(genuine breech-cloth), 복합型(Compound form)이 그것이다. 먼저 脚絆型을 보면, 이것은 두개의 legging을 한개로 수직봉합한 바지로서 앞뒤 中心에 각 한개씩의 수직봉합선이 나타난다. 그는 이러한 脚絆型바지는 일반적으로 가랭이가 좁은 바지로서 유럽식 바지의 原形이라고 보나, 유럽외에도 유럽 最北端에 속하는 南部 Lapland 住民·南北極帶의 America 住民 및 東北 아시아 Chucki族 男子의 民俗服바지도 이 類型에 속한다고 보고된다고 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脚絆型 바지는 가랭이가 대단히 좁으나 그 例外로는 日本의 하카마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바지가랭이가 대단히 넓고, 밀아래 길이는 무척 짧고, 밀위 길이는 상당히 긴 특이한, 예외적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그 기본적 구성은 두개의 대칭적 각반 형태로 재단되어 앞뒤 中心에서 봉합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것은 脚絆型 바지로 분류해야 된다고 본다. 그는 Copenhagen 국립박물관 소장의 대부분의 몽고바지가 이 脚絆型 바지라고 했다.

두번째 유형의 기저커형 바지는 前後에 드리운 一枚의 布를 左右 옆선에서 봉합함으로써 이루어진 바지로서, 그 특징은 앞뒤 中心의 솔기가 없는 대신, 下體 兩側面의 두출의 수직 솔기로서 나타난다. 이 型은 사용된 옷감의 布幅의 廣狹에 따라 바지 길이가 달라진다. 즉 廣幅의 布로만든 바지

의 경우에는 바지가랭이가 길지만, 細幅布로 만든 바지의 경우에는 現在の 男子 수염복 정도로 바지 길이가 짧은 것도 있다. 이렇게 그 길이가 짧은 경우에는 바지통을 따로 만들어 붙여서 긴바지 형태로 만들 수도 있지만, 이러한 바지는 그 구성상의 원리로 보아 어디까지나 脚絆型이 아닌 기저귀型 바지로 분류된다. 이 기저귀型 바지는 北方 아시아一帶에서 사용되고 있고, 그 가장 단순한 類型 및 다양한 전개는 몽고복식에서 나타난다고 보고된 바 있다고 했다.

세번째의 複合型은 앞의 두가지 類型이 복합된 형태로서, 두 개의 脚絆 사이를 연결하는 中央部の 布(Central Part)가 있는 형을 가리킨다. 이 中央部는 기저귀형과 각반형의 혼합에서 유래된 기저귀布의 변형으로서 이 類型의 특징은 앞뒤의 中心 솔기가 없고, 앞의 기저귀型에서 나타난 두줄의 옆솔기도 없으며, 그 대신 몸판의 前後에 기저귀부분과 脚絆을 잇기 위한 각 2個씩, 도합 4個의 수직 봉합선이 나타난다. 이 봉합선은 民族에 따라 두 선이 平行하게 수직을 이루거나(Pathan 族 女子바지의 例), Turkestan의 Sart 人의 女子바지 및 중국 Coolie 들의 바지처럼 銳角을 이루며 만나거나, 한국·중국南部의 女子바지·인도지나의 Shan 人의 바지처럼 직각을 이루는 형태等 변화가 있다. 이 복합型 바지의 中央部の 기저귀布는 온전한 마름모꼴 그대로 脚絆부분과 접합되거나, 혹은 가운데를 타원형으로 잘라내어 바지 가랭이 안솔기를 폭선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Hansen 은 그가 관찰한 Copenhagen 國立博物館의 몽고服 바지에는 脚絆型이 11點으로 가장 많고, 한국 및 중국의 복합형 바지와 흡사한 형이 꼭한 點있었다고 보고 했다. 脚絆型은 4點이 일반男女의 바지, 3點이 Shaman 의 바지, 4點이 devil dancer 의 바지였고, 복합型은 씨름꾼의 바지라고 했다.

결론적으로 Hansen 의 분류에 의하면 우리의 斜幅바지는 기저귀형 바지와 脚絆이 혼합된 복합형 바지인 반면, 高福男所藏의 17세기 初에 속하는 바지 및 淑大博物館所藏의 무명누비바지類는 앞뒤 中心에 솔기가 각 하나씩 있는 脚絆型으로 그 類形이 좀 다른 제통으로 볼 수 있다. 또한 女子의 內

衣用 바지도 모두 脚絆形의 變形으로 분류된다.

IV. 綜合 및 問題의 提起

以上에서 살펴본 바 우리바지 형태에 대한 諸견해와 Hansen 의 바지 분류에 관한 이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하고 이로부터 논리적으로 추출되는 몇가지 의문을 제기해본다.

바지를 細袴·寬袴의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은 바지의 외관을 구분하는 단순하고도 편리한 기준이며, 그 특징에 의해 착용자의 신분 및 바지의 용도를 추정해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만일 바지의 구성형태의 파악이 가능하다면, 襠의 有無 및 그 襠(혹은 中央布, 혹은 Central plece)이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가, 우리의 '窮袴'를 細袴보다는 襠이 달린 바지로 보는 견해가 유력시 되는 지금, 그렇다면 大口袴는 무엇인가? 寬袴인가, 부리가 열린 細袴인가, 袴褶의 下衣인가? 胡服下衣라면 Noin-ula 에서 보는 바와 같이 襠이 달린 바지인가? 혹은 Hansen 의 이른바 脚絆式 바지, 혹은 金文子가 말한바 페르샤의 一字形 바지의 영향을 받은 스키타이의 寬袴로서 옷감을 직선 그대로 사용해서 따로따로 가랭이들을 만들어 봉합시킨 형태인가? 혹은 開袴인가?

女子의 고쟁이 바지는 上代에는 없었는가? 조선조 이후에 비로소 밀트임이 있기 시작했는가? 그렇다면 正倉院 遺物바지의 밀트임은 무엇인가? 柯半·柯背는 무엇이었을까? 斜幅바지는 각반형 바지 밑의 襠이 점점 발달해서 폐 후기에 생겨난 것일까? 아니면 Hansen 의 말처럼 여기에는 기저귀형布의 Idea 도 없지않아 남아있는 것일까? 斜幅재단의 특이한 Idea 속에 숨은 기술상의 제한, 혹은 철학적 원리는 무엇일까? 중국 및 몽고의 민속服에 나타나는 우리바지와 흡사한 斜幅바지는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 것일까? 그 共有의 時期는 언제까지로 소급할 수 있을까? 犢鼻褌의 形制는 Hansen 式 분류의 기저귀形인가? 아니면 複合形인가? 이것과 몽고 및 北아시아의 이른바 기저귀形 바지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以上の 의문은 現今까지 거기에 쉽게 답 할수 없
는바 所以로서 실물 및 문헌자료의 太否이란 난
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해당의 가능·불가능을 전
제로 하지 않는 체계적·합리적 의문의 제기는 주
어진 자료를 통한 논리적 추론에 못지 않게 어떤
현상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즉 앞
으로 찾아가야할 자료추적의 方向을 설정하는 근
거가 될 수 있고, 또한 결여된 자료를 포함한체로
나마 하나의 거시적 조감도를 마련해 줌으로서 전
체적 맥락을 구성해 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살펴본 바 바지의 형태에 대한 諸見解는
우리 바지의 유형적 파악과 그 발전·전개 및 인
근 三國 바지와와의 비교 및 世界민속의상 中 하나
로서의 우리옷의 위치파악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를 찾기 위한 노력이다.

參 考 文 獻

1. 李如星, 朝鮮服飾考, 서울: 白楊堂, 1947, p. 129.
2. 金東旭, 韓國服飾史研究, 亞細亞文化社, 1973, pp. 13~15
3. 柳喜卿, 韓國服飾史研究, 梨大出版部, 1975, pp. 24~27.
4. 白英子, “우리나라袴에 關한 小考”, 대한가정학회지 제11호 3권, pp. 53~67.
5. 王宇清, 中國服裝史綱, 臺北: 中華大典編, 1967, pp. 103~109.
6. 李京子, “古墳壁畫에 나타난 基本服飾”, 韓國服飾史論, 서울: 一志社, 1983, pp. 81~122.
7. 朴京子, “우리나라袴에 關한 小考”, 韓國服飾論攷, 서울: 新丘文化社, 1983 pp. 195~206.
8. 劉頌玉, “고구려의 복식구조”, 韓國의 服飾, 韓國文化財保護協會, 1982, pp. 47~64.
9. 金文子, 古代韓國服飾의 療流에 關한 研究, 梨大博士學位論文, 1984, pp. 82~86.
10. 杉本正年, 東洋服裝史論攷, 古代編, 東京: 文化出版社, 1980, pp. 240~242 : pp. 291~292.
11. 金東旭, “韓國服飾史”, 韓國文化史大系Ⅳ, 高麗大學校, 1971, p. 97.
12. 高福男, 韓國傳統服飾史研究, 서울: 一潮閣, 1986, pp. 137~164.
13. Henry, H. Hansen Mongol Costume, National Museers Skrifter, Ftnografisk Boekke, Ⅲ, Copenhagen, 1950, pp. 81~85; pp. 105~111.